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2부 · 소극적 표지 2: 몸의 격렬한 반응

『신앙감정론』 제2부 「신앙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 중 두 번째 소극적 표지, 인쇄 199~204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사람의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로 묶여 있어서 모든 감정은 몸에 영향을 주고, 감정이 클수록 그 영향도 큽니다. 세상일 때문에 생긴 감정도 몸을 크게 흔들 수 있으므로, 몸이 반응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감정이 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진짜 영적 감정이라면 몸을 압도할 리 없다”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영적 감정에는 하나님의 강한 힘이 있고 사람의 몸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에드워즈는 시편 기자, 하박국, 다니엘, 요한의 예와 성경에 자주 나오는 몸의 언어로 이를 보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몸의 반응은 참된 감정에서도 나오고 거짓된 감정이나 마귀의 속임수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 몸의 반응은 어느 쪽의 증거도 되지 않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2(소극): 신앙감정이 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그 감정이 참되다는 증거도 거짓이라는 증거도 아니다.

몸은 감정의 '세기'에 반응할 뿐,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세상일에 대한 감정도 몸을 흔들 수 있으니 몸의 반응이 영적임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연약한 몸을 압도하는 일도 성경에 있으니, 몸의 반응이 가짜임을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 1. 모든 감정은 몸을 움직인다

에드워즈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영혼과 육체가 서로 묶여 영향을 주고받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생생하게 움직이면 몸의 체액과 '본능'(원문은 animal spirits로, 당시 생리학에서 신경 속을 흐른다고 여긴 기운)이 함께 움직입니다. 아주 사소한 생각 하나가 몸을 바꾸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일어날 때 몸이 무언가를 느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감정이 클수록 몸의 영향도 커집니다. 일반적 감정이든 영적 감정이든 크게 고조될 수 있으므로, 둘 다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나타난 영향만 보고 그 감정이 영적인지 일반적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1. 영혼과 몸은 하나로 묶여 있다
2. 감정이 일어나면 몸도 반응한다
3. 감정이 클수록 몸의 반응도 크다
4. 영적 감정·일반 감정 모두 그렇다
5. 그러니 몸은 감정의 출처를 못 가른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없음)**
> 에드워즈는 성경보다 인간 본성의 원리(제1부에서 다룬 영혼과 몸의 관계)에 기대어 논증을 시작한다

“모든 감정은 어떤 것이든 어떤 점에서든 또는 어느 정도로든 몸에 영향을 준다.”

📜 2. 세상일도 몸을 흔든다 — 그래서 '참'의 증거가 아니다

첫 번째 방향의 결론입니다. 몸의 반응이 크다고 그 감정이 영적이라고 할 수

일에 대한 감정 역시 본성적인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도 똑같이 몸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쓰러짐이나 떨림을 성령의 역사라는 도장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1. 신앙 없는 일로도 몸은 크게 반응한다
2. 본성적 감정도 몸을 압도할 수 있다
3. 몸의 반응 = 성령의 역사, 아니다
4. 쓰러짐은 은혜의 도장이 아니다

> **(이 단락에는 직접 인용 없음)**
> 누구나 겪는 일상 경험에 호소하는 논증이다

📜 3. 그렇다고 '거짓'의 증거도 아니다 — 강한 성령, 약한 몸

이제 반대 방향입니다. 거룩한 감정이 본성적 감정만큼 강하게 일어날 때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근거는 이성에도 성경에도 없습니다. 당시 최근의 논쟁들에서도 그런 규칙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묻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보고도 정신을 잃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쓰러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반면 사람의 혈과 육은 매우 약해서 하늘의 큰일을 감당하기에 알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8이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연약한 몸에 너무 벅찰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1. 영적 감정은 몸을 못 흔든다? 근거 없다
2.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다
3. 사람의 혈과 육은 극도로 약하다
4. 큰 기쁨은 약한 몸을 짓누를 수 있다

> **에베소서 3:20**
>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곧 영적 감정 배후의 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디모데후서 1:7

그리스도인 안의 영은 능력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에베소서 3:7

성령께서 효력 있게 역사하신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에베소서 1:19

하나님의 강한 힘이 신자 안에서 일한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태복음 26:41

“육신이 약하도다”, 몸의 연약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15:43

지금의 몸은 약한 것으로 심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린도전서 15:50

혈과 육은 하늘에 속한 것을 받기에 맞지 않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베드로전서 1:8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몸이 감당하기 벅찬 기쁨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적인 감정에는 강한 힘이 있다.”

📜 4. 천국의 맛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주실지 우리가 정할 수 없다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면 연약한 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자주 가르칩니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지식과 거기서 나오는 감정은, 하늘의 성도들이 가진 것과 종류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정도와 환경뿐입니다. 땅에서 받는 것은 천국 행복의 맛보기이며, 장차 받을 유업의 '보증'(계약금처럼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일부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보증을 몸이 약해질 만큼은 절대 주시면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그런 제한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선을 긋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하는 건방진 일입니다.

1. 땅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은 같은 종류
2. 차이는 정도와 환경뿐이다
3. 지금의 기쁨은 천국의 맛보기·보증
4. 하나님께 얼마만큼만 주시라 할 수 없다
5. 선을 긋는 것은 주권을 제한하는 일

베드로전서 1:8

앞에서 다룬 본문을 다시 불러와, 땅의 기쁨이 하늘 영광의 맛보기임을 보인다

>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이 단락에서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없다', '유업의 보증'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장절 표시 없이 말한다.)

📜 5. 시편 기자와 하박국 — 영혼과 함께 육체도 반응했다

시편 기자는 강렬한 신앙감정을 말하면서 그 감정이 영혼만이 아니라 몸에도 미쳤다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시편 84:2와 63:1은 마음과 육체, 영혼과 육체를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러고는 둘 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에 사로잡혔다고 말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을 때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120에서도 기자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몸이 떨린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거짓 감정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성도들입니다.

1.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 말한다
2. 그리고 둘 다 감정에 영향받았다 한다
3. 하박국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 떨었다
4. 몸의 반응은 경건한 성도에게도 있었다

> **시편 84:2**
> 영혼이 쇠약해지고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
>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 **시편 63:1**
> 영혼이 갈망하고 육체가 앙모한다, 몸도 사모함에 참여한다
>
>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 **하박국 3: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시편 119:120

주를 두려워함으로 육체가 떨린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 6. 다니엘과 요한 —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몸이 압도되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성도의 몸이 실제로 압도된 사례도 성경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이상을 보고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요한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이 본 것은 외적인 상징일 뿐이니 오늘의 영적 감정과는 다르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답은 이렇습니다. 눈에 보인 것은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이 상징을 쓰신 목적은 그 실체인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압도한 것은 결국 그 영광에 대한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외적 상징 없이는 자신의 영광을 생생하게 보이실 수 없다거나 보이시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대담한 주장입니다.

1. 다니엘은 이상 앞에 힘이 다 빠졌다
2. 요한은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
3. 상징의 목적은 실체인 영광을 아는 것
4. 압도한 것은 결국 영광에 대한 지식
5. 상징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은 지나치다

다니엘 10:8

그리스도의 영광의 현현 앞에서 몸의 힘이 빠졌다

요한계시록 1:17

영광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 7. 성경의 '몸의 언어', 그리고 마지막 경고

성경은 거룩한 감정의 강도를 표현할 때 몸의 반응을 자주 씁니다. 떨림, 탄식, 병약해짐(사랑으로 병이 남), 부르짖음, 헐떡임, 쇠약해짐 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저 수사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성령께서 거룩한 감정을 나타내려고 고르신 적절한 수사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감정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런 표현은 영적 감정의 강도를 나타내는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에드워즈는 하나님이 사탄의 흔적이나 웅덩이의 악취 같은 것을 하늘의 감정을 그리는 아름다운 말로 쓰셨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몸의 반응은 슬프게도 거짓 감정과 마귀의 속임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반응은 어느 쪽의 증거도 아닙니다.

1. 성경은 몸의 언어로 거룩한 감정을 그린다
2. 떨림·탄식·헐떡임·쇠약함·부르짖음
3. 수사라 해도 성령이 고르신 적절한 말
4. 몸에 영향 못 준다면 그 수사는 성립 안 됨
5. 단, 거짓 감정·마귀도 몸을 흔든다

에스라 9:4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떠는 자들, 떨림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떠는 자를 돌보신다, 떨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로마서 8:26

말할 수 없는 탄식, 성령과 함께하는 탄식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가 2:5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 병약해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시편 42:1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듯, 헐떡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119:131

주의 계명을 사모하여 입을 열고 헐떡임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81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영혼이 쇠약해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 밖에 에드워즈는 시편 119:120, 이사야 66:5, 하박국 3:16(떨림), 아가 5:8(병약해짐), 시편 84:2(부르짖음·쇠약함)도 함께 든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감정(affection)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끌리거나 밀어내는 강하고 생생한 움직임입니다.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이 이 감정에 깊이 자리한다고 봅니다.

소극적 표지
참된 은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있다고 참이 아니고, 있다고 거짓도 아닌 표시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연합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과 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도록 지으셨다는 원리입니다.

본능(animal spirits)
18세기 생리학에서 신경을 따라 흐르며 마음의 움직임을 몸에 전한다고 여긴 기운입니다. 번역서는 '본능'으로 옮겼습니다.

일반적(본성적) 감정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없이 사람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입니다.

영적 감정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셔서 생기는 거룩한 감정입니다.

혈과 육
성경에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몸과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장차 받을 하늘 유업의 일부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계약금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무엇을 언제 얼마나 주실지 스스로 정하시는 자유와 권리입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모든 감정은 몸에 영향을 주고, 큰 감정은 큰 영향을 줍니다.
- 세상일이나 거짓 감정도 몸을 흔들 수 있으므로, 몸의 반응은 참된 은혜의 증거가 아닙니다.
- 하나님의 영광은 연약한 몸을 압도할 수 있고, 성경에도 그런 성도들이 나오므로 몸의 반응은 거짓의 증거도 아닙니다.
- 하나님이 천국의 맛보기를 얼마나 주실지 우리가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결국 몸의 반응으로는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기준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합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5편 · 뜨겁다고 진짜는 아니다 · 강도와 몸의 반응 (표지 1·2) (준비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